
정책참고자료

2017-15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	4
2	국민권익위원회	
	“민관협력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을”	7
3	기획재정부	
	최저임금 관련 T/F 회의 개최	10
4	교육부	
	창의·인성을 기르는 학교예술훈육활동 사례를 찾습니다	11
5	미래창조과학부	
	뜨거운 태양의 비밀을 풀며 시원한 과학관으로 여행을 떠나요!	14
6	문화체육관광부	
	가자, 강원도로! 즐기자, 문화올림픽!	18
7	농림축산식품부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23
8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27

9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31
---	----

10 여성가족부

성평등 사회를 위해 이렇게 바꾸어 가요!	38
------------------------	----

11 국토교통부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40
------------------------------	----

12 해양수산부

여름철 오감을 만족시켜 줄 어촌체험마을이 뜬다	5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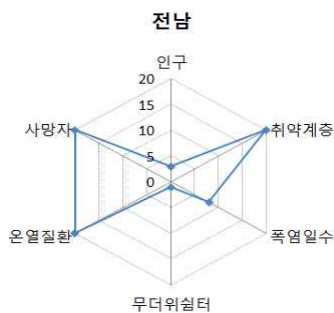
민·관이 함께 노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 추진

-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특별교부세 29억 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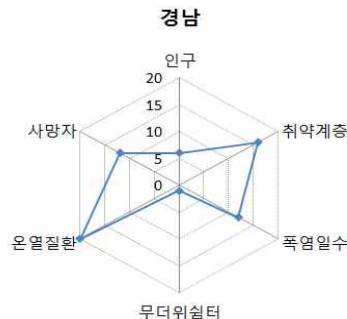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며,
-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사회 여건, 그리고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한 폭염취약성 평가*에 따라 취약한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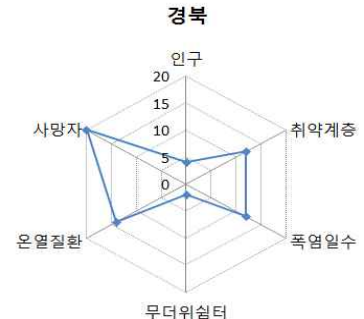
* 평가 인자 : 인구수, 취약계층 수, 폭염일수, 무더위쉼터 수,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 발생 수



<취약성 평가 1위>



<취약성 평가 2위>



<취약성 평가 3위>

- 특히, 금년에는 시·도의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지역 사회의 민·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시·도별 홍보계획 중 우수한 4건을 특화홍보*로 지정하여 특교세를 추가 지원한다.

* (경기) '뜨거운 태양, 잠깐의 이별통보', 야외작업장 대상 휴식시간제, 작업장 쉼터마련 홍보
 (충남) '이냉치열',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길가 등 야외활동 시 물 휴대 홍보, 얼음물 나눔
 (전남) '한 낮 더위 피하는 무더위쉼터, 소통·공감·행보 - up!'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내 문화행사 등 실시, 한 낮 더위시간대 무더위 쉼터 이용 홍보
 (경북) '봉사와 함께하는 민·관 폭염 네트워크', 기업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건강안내 등 봉사 활동, 무더위쉼터 주변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환경개선 등

□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폭염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단체는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노하우를 시·도 담당공무원과 공유하고, 시·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각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시·도 담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참여

○ 또, 국민안전처는 무더위 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 쉼터 전담제를 실시하여 불편 및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오고 있다.

【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처리 절차도 】



□ 국민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벌써 404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라며,

* 7. 17. 기준 / 사망 2명 포함

‘17년(온열질환/사망) : 404명/2명, 5월(17/0), 6월(111/0), 7월16일까지(276/2), 폭염특보(일) : 32일
 ‘16년(온열질환/사망) : 375명/2명, 5월(29/0), 6월(108/1), 7월16일까지(238/1), 폭염특보(일) : 23일

○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무더위쉼터 이용 불편사항을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참고1

무더위 쉼터 불편사항 신고

□ 불편사항 신고센터

기 관	실·국	부 서	연락처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9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02-2133-8520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051-888-2964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053-803-455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032-440-3368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062-613-4962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042-270-5981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052-229-415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	044-300-3626
경기도	안전관리실	재난대책과	031-8008-3664
강원도	재난안전실	방재과	033-249-3835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	043-220-2453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041-635-2182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63-280-4379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61-286-3722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54-880-2363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재난대응과	055-211-283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	재난대응과	064-710-3944

“민관협력으로 반부패 네트워크 재구축을”

박은정 권익위원장, 21일 시민사회단체와 새 정부
반부패정책 의견 나눈다

-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청렴 실천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주요 반부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는 반부패 활동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참석한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대선후보에 ‘반부패 12대 정책’을 제안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내외적으로 국가위기 상태에 처했었지만 입법·사법·행정부와 시민사회가 반부패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는 부패방지

체계를 재구축하여 청렴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논의해 수평적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추진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

※ 각 정당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4. 26., 7. 4.)

- 대통령의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 천명
-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 확대
-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공익신고 대상 확대, 공익제보자보호 강화
-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 강화
- 공정경쟁, 정경유착 근절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 부패 방지책 강구
- 전관비리 등 법조계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 경주

최저임금 관련 T/F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은 7.17(월) 14:00,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공동T/F팀장) 주재로 최저임금 관련 첫 번째 T/F회의를 개최하였음
 - T/F 회의에는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통계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이 참석하였음.
- 이날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 7.16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향후 기재부, 고용부 등에 일일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당분간 주 3회 단위로 T/F를 개최할 계획임.

창의인성을 기르는 학교예술 교육활동 사례를 찾습니다.

- 7월부터 지역별 공모전을 거쳐 10월에 전국 공모전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7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10월 25일(수)부터 30일(월)까지 개최한다.
-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학교 예술교육 활동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고, 착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다양한 재능을 표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 10월 전국 공모전은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지역 공모 결과 추천된 우수사례와 학생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전 개요>

- ▶ (접수) 지역별 시도 교육청 접수 및 우수작 추천 : 7월 ~ 10월
전국단위 접수 : 10월 25일(수) ~ 10월 30일(월)
- ▶ (분야) ① 예술교육 우수학교, ② 예술교육 우수수업, ③ 학생예술 우수작품*
* 창작음악, 포스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카툰, 뮤지컬·연극 각본
- ▶ (시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50개, 기관장상 42개, 총 상금 1,300여만원 시상 예정

- 이번 공모는 예술교육 우수학교, 예술교육 우수수업, 학생예술 우수작품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 【예술교육 우수학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교육 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학생 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동아리, 학교연극회, 예술교육 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예술중점학교,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사업
- 【예술교육 우수수업】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의 특색을 살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업사례로써, 예술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타교과와 융합수업 사례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 **【학생예술 우수작품】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주제로 창작음악·포스터·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카툰, 뮤지컬 및 연극 각본의 5개 부문에서 작품을 공모한다.**

* 목표 대상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심벌, 로고 등

- 학생작품 공모는 학생의 창작체험을 확산을 기대하는 만큼 뛰어난 기교 보다는 의미가 명확하고 표현이 참신한 작품을 찾고자 한다.
- 한편,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상작은 하반기에 구축될 학교예술교육 홈페이지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뮤지컬 및 연극 각본은 각급 학교의 동아리 활동 자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 공모결과는 12월에 발표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59개를 비롯하여 총 1,300여만원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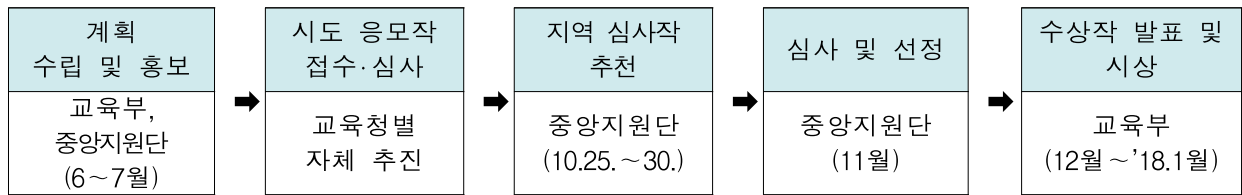
- 아울러, 분야별 대상 수상작은 2018년 1월에 개최되는 ‘2017 학교예술 교육 성과보고회’에서 시상과 함께 전시될 계획이다.

-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향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의 학생작품 부문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여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한 예술교육 사업을 모색 하겠다”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붙임 : 2017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추진 계획(안) 1부.

□ 공모 개요

- (공모 목적) 학교예술교육 우수 추진사례 및 수업 사례를 발굴·보급하고, 학생들에게 예술창작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 및 인성 함양에 기여
- (공모 기간) '17.10.25.(수) ~ 10.30.(월)
- (추진 절차) 시·도 교육청 심사작 추천을 통해 공모전 운영



- (주최 및 위탁기관) 교육부, 예술교육중앙지원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모 분야 및 내용 (장관상 59개, 기관장상 42개, 총 상금 1,350만원 예정)

분야	내용	대상	시상내역
예술교육 우수학교	예술동아리, 거점학교, 드림학교, 중점학교, 지역연계사업 운영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교	장관상장 12개, 기관장상 36개 상금 600만원
예술교육 우수수업	교과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사례	교원	장관상장 2개, 기관장상 6개
학생예술 우수작품	창작음악	초·중·고 학생	장관상장 9개, 상금 15만원
	포스터	초·중·고 학생	장관상장 9개, 상금 15만원
	카툰	초·중·고 학생	장관상장 9개, 상금 15만원
	BI(Brand Identity)	초·중·고 학생	장관상장 9개, 상금 15만원
	뮤지컬·연극 각본	초·중·고 학생	장관상장 9개, 상금 15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홍보(7월) → 지역별 공모 및 추천(7월~10월) → 공모전(10.25.~30.) → 심사 및 결과 발표(12월)

뜨거운 태양의 비밀을 풀며 시원한 과학관으로 여행을 떠나요!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및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단장 김선호)은 여름방학을 맞아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7월 22일(토)부터 특별 전시해설 및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은 과학관의 전시물을 연계하여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 배움터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과학관에서 여행을 떠나요!> 주제로 ‘뭐 타고 갈까?’, ‘어디까지 가봤니?’, ‘Shall we time travel?’ 등 5가지 재미난 여행 스토리가 펼쳐진다.
 - ‘뭐 타고 갈까?’는 여행을 가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며 더 멀리 더 빨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필요한 탈 것을 과학관에서 찾아 설명해 주는 주제 해설 프로그램이다.
 - 우주여행을 떠나기 위한 우주여행자 가이드 해설인 ‘어디까지 가봤니?’ 주제 해설에서는 <첨단기술관>의 항공우주코너를 관람하며 우주여행의 꿈을 키워볼 수 있다.
 - 또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여행을 떠나보는 ‘누구랑 떠날까?’, <미래상상 SF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직업여행을 떠나보는 ‘직업을 찾아 떠나볼까?’와 영어해설인 ‘Shall we time travel?’이 진행된다.
 -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이상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1

일 5차례에 걸쳐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는 <과천과학관 여권> 워크북과 함께 3주제 이상 참가자 선착순 50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 전시해설 프로그램 참가희망자는 7월 15일(토)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예약/신청-전시체험]에서 예약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매회 시작 5분 전까지 <전시해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 1주제 1,000원, 영어해설 2,000원이다.

□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은 기초과학관과 전통과학관에서 여름과 관련된 주제로 전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기초과학관>에서는 ‘보이지 않는 빛 자외선’ 전시물을 사용하여 선글라스와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실험해 보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의 온도를 측정해 나만의 온도계를 만들어 본다.
- <전통과학관>에서는 태양의 운행으로 시간과 날짜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오방색이 지니는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 나의 건강에 맞는 색깔과 음식은 무엇인지 발견해 볼 수 있다.
- 참가희망자는 7월 25일(화) ~ 8월 20일(일) <전시해설센터>에서 매회 시작 10분 전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 1주제 1,000원이며, 초등학교 이상 가족 단위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붙임】 1. 여름방학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 안내
2. 여름방학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안내

전시

테마전시해설

여름방학 특별전시해설
“여행을 떠나요!”



- 기 간 : 2017년 7월22일(토)~8월27일(일) 5주간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가족단위(보호자 동행)
- 운영시간 : 1회(10:30~11:20), 2회(11:30~12:20), 3회(14:00~14:50), 4회(15:00~15:50), 5회(16:00~16:50)

※ 회차별 주제는 요일마다 변경되오니 홈페이지 참조

■ 프로그램

여행을 떠나요!	뭐 타고 갈까?	더 멀리 더 빨리 여행을 떠나기 위한 탈것의 모든 것
	어디까지 가봤니?	우주여행을 떠나기 위한 우주여행자 가이드
	누구랑 떠날까?	아인슈타인, 퀴리부인 등 6인 과학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직업을 찾아 떠나볼까?	미래 나를 찾는 직업 타임머신(1950~2117년) 여행
	Shall we time travel?	Back to the Future. 영어로 떠나는 미래여행

※ 상기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상품 : 과학관여행 여권 워크북,
3개 주제 이상 참가자 선착순 500명에게 소정의 여행 선물 증정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사전 예약 및 1층 <전시해설센터> 현장접수
 - 홈페이지 예약 : 7월15일(토)부터 예약 가능
 - 현장접수 : 매회차 5분전까지 1층 <전시해설센터> 접수
- 참가비 : 1인 1주제 1,000원

※ 참가비는 카드결제만 가능



포스터



여권 워크북



여행 선물

여름방학특집,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 기 간 : 2017년 7월25일(화)~8월20일(일) 4주간
- 장소 : 기초과학관 실험실, 전통과학관 배움터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가족단위(보호자 동행)
- 운영시간 : 1회(10:30~11:30), 2회(13:30~14:30)
- 프로그램

전시관	프로그램명(전시물)	체험 내용
기초 과학관	보이지 않는 빛 (파동이 바꾼 세상)	보이지 않는 빛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썬그라스 또는 썬크림을 만들어 얼마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볼까요.
	가장 맛있는 온도 (플라즈마)	라면, 커피, 와인 가장 맛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도 측정 실험을 해 보고 나만의 온도계를 만들어 봅시다.
전통 과학관	태양이 만드는 시간 (양부일구)	핸드폰, 시계, 전기도 없는 정글로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태양이 만드는 시간의 비밀을 풀어 볼까요.
	내 몸의 색깔 오방색 (사상체질)	전통시대 의식주 생활 속 오방색(노란, 파란, 흰색, 적색, 검정색)이 지니는 삶의 지혜와 나의 건강을 챙겨봅시다.

※ 전시해설(20분)+체험활동(40분)

※ 상기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전시해설센터> 현장접수
 - 현장접수 : 매회차 10분전까지 1층 <전시해설센터> 접수
- 참가비 : 1인 1주제 1,000원

※ 참가비는 카드결제만 가능



가장 맛있는 온도 플라즈마



태양이 만드는 시간 양부일구

가자, 강원도로! 즐기자, 문화올림픽!

- 2018평창동계올림픽 G-200 기념, 강원·서울 중심 다채로운 문화향연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온 국민의 기대와 열정을 한데 모으고, 함께 즐기는 다양한 문화올림픽*의 향연이 대회 개최 200일 전(G-200)을 기념해 개최지 강원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문화올림픽이란? (IOC, 「Cultural Olympiad Guide」)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세계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멀티 플랫폼 프로그램. 개최도시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올림픽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과 페스티벌을 통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7월 20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창 지(G)-200 문화올림픽 기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엠블럼(상징)과 슬로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지(G)-200을 비롯해 지(G)-100일 기념일과 대회기간 등에 열리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재진 평창 문화올림픽 총괄기획자를 비롯해 개최도시인 강원도 문화올림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태욱 총연출감독과 대회기간 메뉴 내 문화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선영 평창조직위 문화부장, 지(G)-200일을 기념하는 개별 프로그램 기획자인 이이남(미디어아트큐브전), 박일호(청년작가 미디어파사드전), 정준모(아트배너전) 등 총 6명의 기획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처음 공개된 문화올림픽 엠블럼은 ‘문화’의 초성 자음인 ‘口’을 적용, 세계로 향해 열린 ‘문’과 활짝 피어나는 ‘꽃’의 모습을 본 떠 대한민국과 세계의 문화가 상호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먼 곳까지 문화를 꽃피우는 평창 문화올림픽의 이상을 담았다.

평창조직위가 사용 승인하는 문화올림픽 엠블럼은 평창조직위가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기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에 부여된다.

이와 함께 ‘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정육면체(큐브) 9조각 형태의 홍보용 슬로건은 각종 홍보물과 사진벽(포토월) 등에 활용되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평창 문화올림픽의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지(G)-200 강원] 대관령 클래식부터 강릉 해변 재즈페스티벌까지 ‘들썉들썉’

지(G)-200일 계기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은 7월 24일(월)을 전후로 약 한 달간 계속되며 클래식부터 재즈, 전시, 오페라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해 강릉 카페거리와 경포해변 등에서 열리는 ‘강릉 재즈프레소 페스티벌(7. 21.~23.)’이 눈여겨볼 만하다. 재즈프레소는 재즈와 에스프레소의 합성어이다.

경포(메인무대)와 강릉 커피거리가 있는 안목해변을 비롯해 하평해변, 사천해변 등에서 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이 지역 15개 카페들이 재즈클럽으로 변신한다. 인재진 기획자는 “커피로 유명한 강릉 지역의 특성을 살려 커피와 재즈를 결합한 음악축제를 기획했다.”라며 “관광객들이 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에서 커피와 어우러진 재즈의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지(G)-200일을 이틀 앞둔 7월 22일(토)에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강원도 춘천역 일원에서 공식 개막행사인 올림픽 불꽃축제가 열린다. '더 원(The on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풍등 날리기,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축제를 수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18일(화)부터 8월 8일(화)까지 22일간 알펜시아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개최된다. 7월 26일(수) 개막 공연과 28일(금) 저명연주가 시리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아시아권에서 연이어 진행되는 올림픽을 함께 축하하는 '한·중·일 콘서트'로 펼쳐진다. 특히, 작곡가 김택수가 올림픽을 기념해 음악제에 헌정한 '평창을 위한 팡파르'가 8월 2일 (수) 오후 7시 30분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초연된다.

[지(G)-200 서울] 서울역 수놓을 올림픽 미디어파사드(외벽영상), 전국 순회 아트배너전

이 밖에 8월 1일(화)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는 청년작가 9팀이 참여한 미디어아트전이 열린다. 또한 올림픽을 주제로 한 작가 2018명의 작품과 일반인·문학인들의 올림픽 응원글 2018점을 담은 '아트배너전 올 커넥티드(All. Connected)'가 지(G)-20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아트배너전은 향후 전국 17개 시·도 순회 전시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축제('17년 5월~10월/총 14건)들도 평창 문화올림픽에 힘을 보탠다. 오는 8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는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8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 8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는 '에이시시(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잇달아 열려 평창을 주제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는 지(G)-100일 계기 문화대향연으로 예정된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Pride of Korea)', '5대궁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00일 전인 지(G)-100(2017년 11월 1일)을 전후해 상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Pride of Korea): 클래식, 재즈 등 장르별 전 세계 최고예술인들의 협연 축제

[대회기간 도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 높여 '문화 마케팅' 기회로

한편, 올림픽 개최도시인 강원도에서는 올림픽 공식 개막에 앞서, 2018년 2월 3일 문화올림픽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축제의 장으로 꾸민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 강원도만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사는 강원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첨단 융·복합 엔터테인먼트 쇼로 탄생시킨 '상설 테마 공연-4계절 판타지(4 Seasons Fantasy)',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완성시킬 '비무장지대(DMZ) 평화예술제', ▲ 강원도의 거대한 겨울 숲이, 관람객들의 체험을 통해 색다른 시공간으로 변화하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특별전 (A Mysterious Forest)' 등이 있다. 아울러 강원도의 모든 시·군이 강원도의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다년간 준비한 '1시군 1문화 예술공연'을 중심으로, 120여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하는 특별공연이 매일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맛·멋·흥을 주야간으로 즐길 수 있는 대형 난장인 '페스티벌 파크(Festival Park)'가 평창과 강릉에 마련되어, 또 하나의 문화 어울림 장을 선사한다.

김태욱 감독은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문화올림픽은 강원도 그 모습 그 대로에 약간의 포장과 이야기를 더할 뿐이다. 강원도 자체가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를 느끼고 다시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 문화, 관광, 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며 강원도 문화올림픽의 기획방향을 설명했다.

[대회기간 올림픽 메뉴]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열리는 문화올림픽

한편, 대회기간 올림픽 메뉴(올림픽대회 개최장소) 내에서도 문화올림픽

은 계속된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세계 각국 선수들과 미디어, 관중들이 집중될 평창, 강릉 등 올림픽 베뉴를 중심으로 열리는 문화올림픽은 올림픽 선수촌 팀 환영행사('18. 2. 4.~2. 8. 예정)를 시작으로 패럴림픽 폐막일('18. 3. 18.)까지 약 40일간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문화예술 거장들의 전시,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민속체험, 국·공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관중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리예술 행진(퍼레이드)과 케이팝 공연,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과 문화 이벤트를 함께 즐기는 거리응원(라이브사이트)도 진행된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 날과 올림픽 참가국들의 날도 지정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과 해외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평창조직위 문화부 이선영 부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날마다 문화가 있고 축제가 열리는 문화올림픽(Everyday Culture and Festival)’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G)-200 기념 문화대향연을 비롯한 향후 예정된 문화올림픽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문화올림픽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와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문화올림픽의 추천 프로그램 30선을 담은 ‘문화올림픽 프로그램북’ 또한 8월 1일(화) 이후 문체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뜨거운 태양이 내려찍는 8월, 보약같은 농가 밥상이 있고 다양한
명소와 체험이 있는 농촌마을로 떠나 보아요—

《 주 요 내 용 》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지역체험·관광명소를 테마별 여행코스로 선정

○ 농촌체험마을, 경관명소, 지역장터, 박물관, 수목원, 레포츠 체험 등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과 볼거리로 구성

지 역	여름나기 좋은 농촌마을 여행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7선
경 기	[낙농체험] 나룻배마을 → 허브빌리지 → 애심목장 → 재인폭포 → 푸르내마을
경 기	[생태탐방] 모꼬지마을 → 용문오일장 → 용문산 관광지 → 두물머리
강 원	[레저·스포츠] 숲속동키마을 → 배바위카누마을 → 비발디파크오션월드
강 원	[레저·스포츠] 해담마을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하조대 → 농가맛집달래촌
강 원	[전통문화] 환선굴 → 고천마을(고든내마을) → 삼척시립박물관 → 해양레일바이크
충 남	[전통생활] 천리포수목원 → 백리포 해변 → 매화듬뿍마을
전 북	[생태탐방] 진원반디길마을 → 머루와인동굴 → 안국사 → 김환태문학관

◇ 선정된 농촌여행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www.welchon.com)” 에서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 공사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8월, 올 여름을 시원하고 멋지게 지낼 수 있는 '여름나기 좋은 테마별 농촌여행코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매월 계절·테마에 적합한 농촌여행코스를 선정, 발표해 오고 있음

○ 2017년 8월에 추천되는 여행코스는 무더운 여름을 피하여 농촌의 한적함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지역장터, 낙농목장, 수목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서철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북적이는 유명관광지를 벗어나 여행객들에게는 여름 농촌의 매력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코스는 각 코스별로 테마가 있어 여행객들이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여 농촌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경기도는 **낙농체험 코스**로, 민통선 투어, 임진강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인 연천 나룻배마을, 송아지 우유주기와 치즈체험 등의 다양한 목장체험을 할 수 있는 낙농체험목장이자 6차산업인증업체 애심목장, 한탄강가의 협곡에 위치하여 절경과 함께 폭포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재인폭포, 팜(Farm)을 활용한 특수목적형 농촌관광상품(팜연수 프로그램)으로 기업체 등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천 푸르네 마을로 이어지는 코스와,

- 또한 **생태탐방 코스**로, 더위를 쫓을 수 있는 미꾸라지 잡기, 뗏목타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인 양평 모꼬지마을, 메밀전병, 메추리구이 등을 판매하는 지역장터 용문오일장, 여러 문화유적과 친환경농업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는 용문산관광지,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 두물머리를 연계한 코스이다.

- 강원도는 레저·스포츠 코스로, 백두대간 체험형 테마파크로 조성된 동물농장인 숲속동키마을, 카누·카약타기,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배바위카누마을 등 3곳의 명소를 연계한 코스와
 -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인 양양 해담마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오산리 유적지에 위치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기암절벽 위의 하조대, 그리고 6차산업인증업체인 농가맛집 달래촌을 연계한 코스,
 - 또한 전통문화체험 코스로, 동양 최대 석회암동굴 환선굴과 두타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맑은 물로 자란 친환경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고추장 등 장류 전통식품, 대방골 산책길, 전통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인 삼척 고든내 마을(고천마을),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문화와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삼척시립박물관, 바닷가 해안을 따라 달리며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일바이크를 연계한 코스이다.
- 충청남도는 전통생활 코스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 미꾸라지잡기와 우리 전통의 조리법인 삼굿구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태안 매화뚝방마을, 규모는 작지만 자연 경관과 깨끗한 바다 그리고 고운모래가 일품인 백리포해변을 연계한 코스이다.
- 전라북도는 생태탐방 코스로, 고추장 만들기와 진원반디길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인 무주 진원반디길마을, 무주의 대표적 특산품인 산머루와인을 맛볼 수 있는 머루와인 동굴, 적상산성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찰 안국사 등을 연계한 코스 등 총 7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 선정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 여행의 모든 것” (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농촌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 계절별, 월별로 여행테마를 선정하고 우수 농촌관광자원과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을 포함한 농촌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조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1시간당 약 7kWh 충전(35~40km 주행가능)
 - ** 국내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30분당 약 20kWh 충전(100~120km 주행가능)
 -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7 - 544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 중임.

평가기준 중 충전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나, 현재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충전소요시간 제한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충전속도 기준 추가
- 나. 기존 4종으로 분류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3종으로 간소화
- 다. 1회 충전 주행거리로 상온기준은 120km이상에서 60km로 완화, 저온기준은 기존 90km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로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청정대기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전화: 044-201-6885 또는 6882, FAX: 044-201-6895, 전자우편: wiz3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단위에서 노사, 전문가 참여 통해 자율 추진
- 7~8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통계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1. 기본원칙: 다섯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 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②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③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④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 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2. 전환 대상기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 그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이 상당부분 된 기관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3. 전환기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 제한적 예외 인정

-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기존안	개선안
■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 ① 삭제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

- 따라서,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니다.
-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1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
- 2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

기간제

- 1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2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3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4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5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한 경우

파견·용역

- 1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2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3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5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 비전환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전환과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시달한다.
-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안	개선안
■ 정규직 전환 기준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전환 추진	■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 거쳐 전환 → 컨설팅팀 지원

5. 채용방식 · 임금체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 다만, 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 제한 공개, 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6. 전환시기: 기간제 '17년말까지, 파견용역 계약기간 종료 시점

-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한다.
-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8. 후속조치

-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고용부 차관 주재)』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현장 단위의 갈등 관리를 위해 컨설팅,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팀을 중앙(30명), 지방(400여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조사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 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이렇게 바꾸어 가요!

- 『성평등 가이드북 : 유쾌한 변화, 성평등!』 발간 -

가이드북 내용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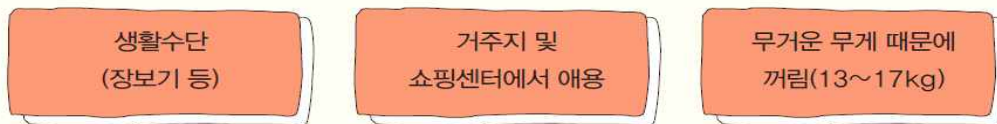
정책 개선 사례 (서대문구)
: “왜 여성은 자전거를 타지 않을까”

◇ (문제인식)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하고자 자전거 거치대 주변환경과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성의 자전거 이용률은 정체 상태

◇ (문제조사) 생활권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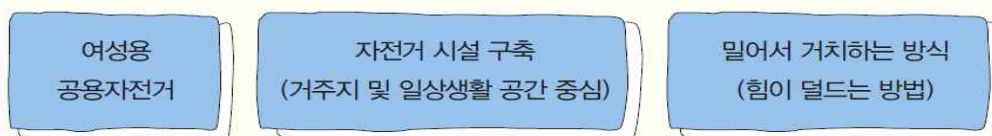
- 자전거의 성별 이용률 불균형에 주목하여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업을 재검토
- 여성들은 건강과 취미생활 보다는 장보기 등 생활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등하교나 출퇴근을 고려한 위치에 자전거 거치대가 주로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 발견

여성의 자전거 이용 특성



◇ (문제해결) 분석결과에 따라, 여성이 이용하기 용이한 여성용 공영자전거를 구매하고, 거주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 중심으로 자전거 시설을 구축

개선 사항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평등 가이드북 : 유쾌한 변화, 성평등!」을 제작·배포한다.

- 이번 가이드북(안내서)은 ‘성평등’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우리사회가 ‘성평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 등을 담고 있다.

- 특히, 공무원용에서는 ‘정책을 성평등하게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사례를 제시한다.
 - 여성가족부는 일반국민용, 공무원용 외에 앞으로 청소년용 등 계층별 맞춤형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작할 예정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7월 7일(금)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됐으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배포되고 가족친화포럼 등 기업 관련 행사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반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성평등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번 안내서를 적극 활용하여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길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수도권 출발 7.29. 복귀 8.1. 가장 혼잡...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7월 21일(금)부터 8월 10일(목)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올 휴가철에는 7월 29일(토)~8월 4일(금)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토),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화)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 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
 - 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통수요조사 결과 】

□ 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7. 21.~8. 10., 21일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하여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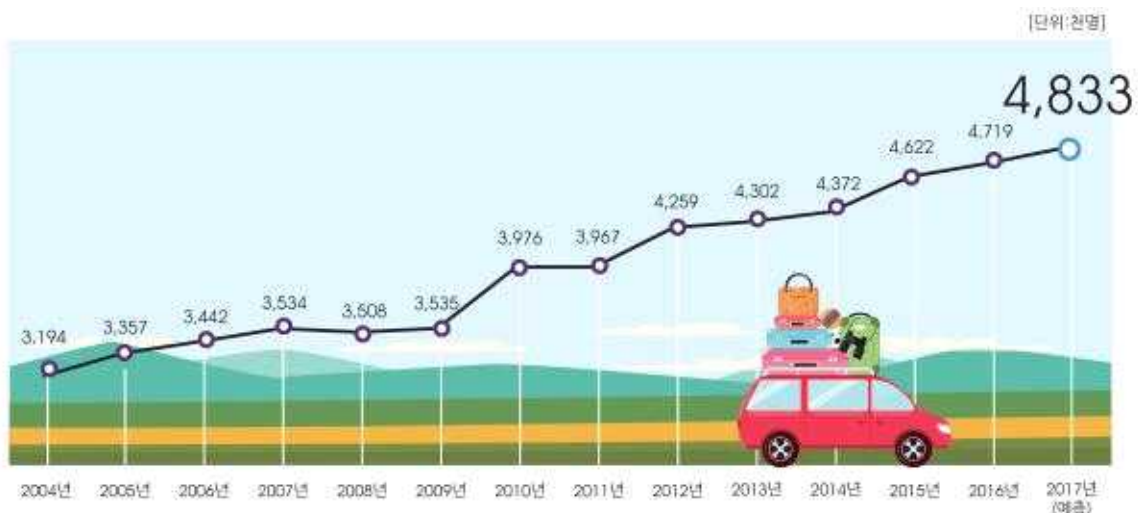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 조사기간: '17. 6. 22.(목)~6. 25.(일)(4일간)
- 조사표본: 총 조사 세대수 5,000세대(유선전화 보유가구 2,901세대, 인터넷전화 보유가구 840세대, 유선/인터넷전화 미보유가구 1,259세대 포함,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38\%$)

-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시(431만 대/일, '17년 6월 2주~5주)보다 4.6% 증가

* 고속도로별 이용도: 영동선 24.7%, 경부선 18.2%, 남해선 10.4%, 서해안선 7.6%, 중부선 6.8%, 중앙선 6.8%, 호남선(천안-논산) 5.0%

2017년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중 1일 평균 이동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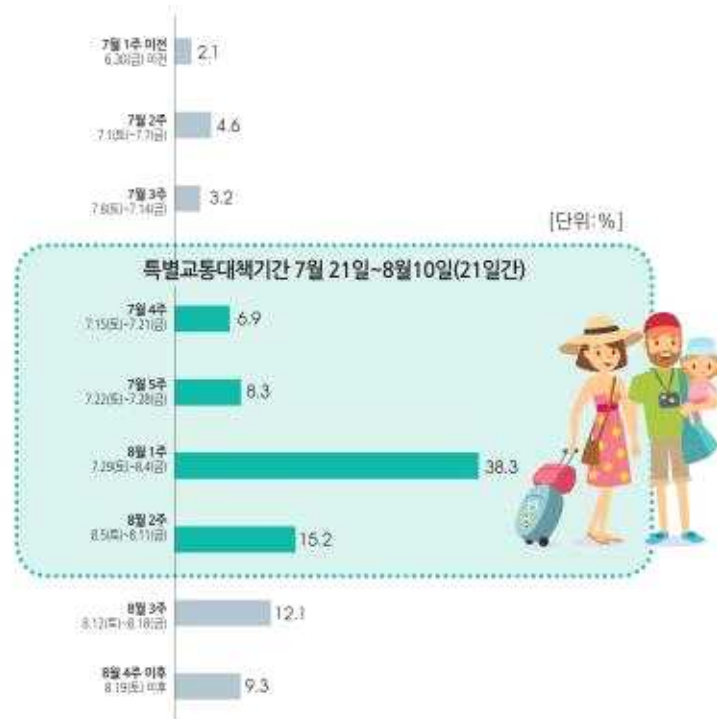


-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7. 29.~8. 4.(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되어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7. 29.(토),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 1.(화)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비율)



-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예상 휴가지역별 분포(비율)



【 특별교통대책 】

- 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송력 증강) 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 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

구 분	'17년 평시(A)	기간 중 증강	합계(B)	B/A(%)
고속버스(횟수)	5,700	171	5,871	103.0
열차(횟수)	743	8	751	101.1
항공기(편수)	521	34	555	106.5
여객선(횟수)	797	148	945	118.6

* 시외버스 예비차 388대와 전세버스 45,141대를 확보하여 수송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탄력적 운행



- (교통량 분산)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수요가 분산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km)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km)에 대하여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
 -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 * 경부선 양재나들목~천안나들목 등 43개 구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
 -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하여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소통향상) 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
- 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43호선 광전IC-의정부 등 35개구간(255.4km)이 준공 개통되고, 47호선 퇴계원-진접 등 11개구간(59.7km)이 임시 개통됐다.
 - 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되어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하여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하여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

면을 증설했다.(97→155면, 58면↑)

* (중부선 접속부) 중부선, 제2중부선 경기광주Jct→남들기고개 1.5km
(영동선 접속부) 원주Jct~원주IC 1.5km(양방향)

- 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km),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km)를 운영하여,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금요일)부터 8월 1일(화요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하여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 경부선: 평일 한남대교-오산(44.8km), 토요일 및 공휴일 한남대교-신탄진(141.0km)

** 영동선: 7. 29.(토)~9. 30.(일), 토요일 및 공휴일(7시~21시) 신갈Jct~여주Jct(41.4km)

- 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 서울외곽선 장수(일산)·중동(양방향)·송내(양방향)·계양(판교), 서운Jct(판교)

- 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편의증진) 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7. 29.(금)~7.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7. 22.~8. 7.)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 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 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김해공항 주차상황 안내, 만차 시 공항 주변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알림 서비스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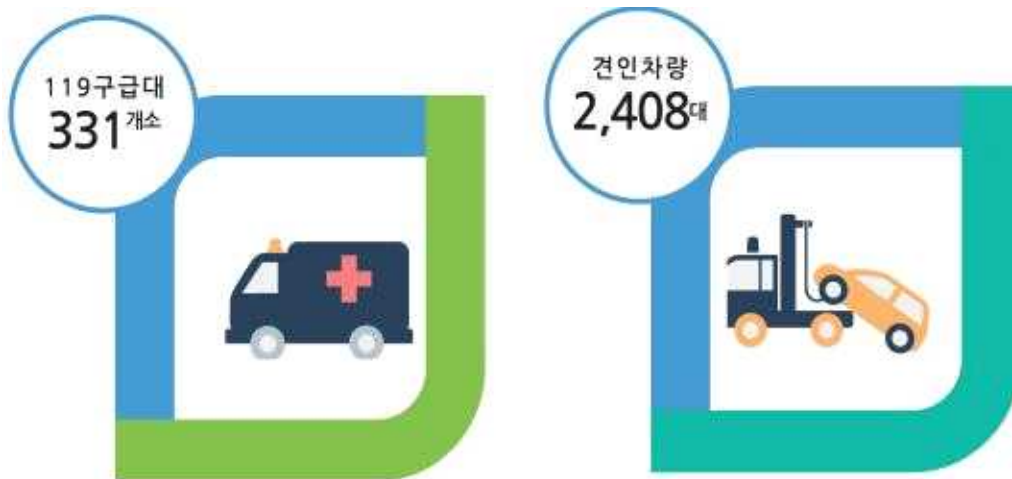
- 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하여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 교통안전대책 】

-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 **(도로·육상교통안전)** 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119구급대 연락 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



-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레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철도안전)**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 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7. 5.~8. 20.)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재해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 기간: '17. 5. 15.~10. 15.(5개월간) (에스알(SR) 대책본부: '17. 7.)

* 장소: 한국철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22개)

□ **(항공안전)**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7. 10.~7. 20.)하고,

○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

○ 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해상안전)** 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 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철 오감을 만족시켜 줄 어촌체험마을이 뜬다

- 해수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어촌체험마을 8선 소개 -

이번 여름휴가에는 시원한 물놀이와 싱싱한 먹거리, 수려한 자연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여덟 곳을 추천한다.

△ 색다른 체험을 원한다면? : 소돌마을, 유포마을, 신창2리마을



소돌마을 물고기 맨손잡기



유포마을 개막이 체험



신창2리마을 후릿그물체험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강원 강릉 ‘소돌어촌체험마을’은 천혜의 경관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갖춰 연중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물고기 맨손잡기체험을 비롯하여 투명카누 타기, 갯바위 게잡기, 배낚시 등 색다른 체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오징어빵 만들기, 팔찌 만들기 같은 먹거리·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경남 남해 ‘유포어촌체험마을’은 아름다운 여수광양만의 바다와 남해 지역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망운산 옆에 위치하고 있어 산과 바다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2007년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개막이체험*과 갯벌체험을 비롯하여 후릿그물체험**, 맨손잡이 체험, 어구 만들기 등 다양한 어업 체험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 * 밀물 때 갯벌을 가로질러 미리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 올려 물고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썰물 때 발목 정도 물이 빠지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
- ** 바닷가에 그물을 넓게 친 뒤 여러 명이 양쪽에서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포획

크고 작은 바위가 빗어낸 절경과 골목 사이사이 그려진 벽화가 인상적인 경북 포항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낮아 온 가족이 함께 찾는 관광지로 적합하다. 통발체험, 후릿그물체험, 투명카누 타기 등 활동적인 체험 뿐 아니라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기름을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 천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 중리마을, 장호마을, 안남마을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은 세계 5대 청정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답게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청정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해조류인 감태 채취와 감태 초콜릿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이 유명하다.

전북 고창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약 4km에 달하는 드넓은 명사십리 백사장과 구시포 해수욕장 등을 갖추어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시원한 전망을 자랑하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전남 고흥 '안남어촌체험마을'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지층과 단층대 뿐 아니라 넓은 갯벌도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이다. 굴, 바지락, 꼬막 등을 채취하는 갯벌 체험을 진행하며, 자연에서 바로 얻은 청정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다.

△ 싱싱하고 푸짐한 바다먹거리가 가득한 곳 : 주전마을, 포내마을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던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은 수산물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천혜의 어장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수산물로 만든 ‘해녀밥상’이 유명하며, 이 외에도 주전돌미역과 자연산 회·전복 등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인천 중구 ‘포내어촌체험마을’은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바지락, 동죽, 피조개 등 각종 조개를 맛볼 수 있어 바다를 즐기려는 이들로 늘 북적인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가 큰 인근해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망둥이낚시와 숭어낚시 체험도 빼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우리 어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여름철 오감만족 어촌체험마을 8선’을 준비했다.”라며, “신선한 먹거리를 비롯해 시원한 해수욕, 색다른 체험까지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일석 삼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어촌체험마을에서 풍성한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여름바다를 품은 어촌마을’이라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여름휴가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관광지를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책자에는 권역별로 전국 20개 어촌체험마을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휴가지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의 어촌체험마을 소개란 (www.seantour.kr/vill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여름철 오감만족 어촌체험마을 8선

마을명	소돌어촌체험마을	전화번호	033-662-6492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안길 19	홈페이지	http://www.seantour.com/village/sodol/main/
마을 소개	○ 소돌어촌체험마을은 강릉에 위치한 동해안의 어촌마을로, 현재 투명카누, 낚시체험, 맨손물고기잡기체험, 갯바위 게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 앞에 있는 아들바위는 백일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로 유명하다. ○ 아들바위 인근에는 수산물 직거래 및 시식이 가능한 식당들이 모여 있어 현장에서 싱싱한 해산물들을 즐길 수 있고 주문진수산물시장과도 거리가 가까워 체험 후 주문진수산물시장에 들러 수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름 체험 프로그램	○ 투명카누, 물고기 맨손잡기(8.5~6), 배낚시, 갯바위 게잡이, 먹거리·공예 체험(오징어빵 꾸미기, 팔찌 만들기) 등		
먹거리	○ 문어, 성게, 썰, 활어회, 매운탕 등		
주변관광	○ 주문진항, 주문진수산물시장, 주문진해수욕장, 오대산국립공원(소금강), 향호, 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 임영관, 경포대, 안목커피거리, 정동진 등		
마을사진	 소돌마을 전경  문어숙회  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갯바위 게잡이 체험		